

“경영학·디자인 예술에 불교 입힌 것

유필화·이기향 교수 부부



이기향 교수
 서울대 미술학과·시카고예술학교
 이화여대 대학원 디자인과 석사
 인디아나대 연극대학 방문교수
 現 한성대 예술대학원 대학원장·의류패션산업전공 교수

유필화 교수
 서울대 경영학과·미국 노스웨스턴대 MBA
 하버드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現 성균관대 SKK GSB(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는선우 이사장

사진=노덕현 기자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다.
 “수행을 하는데 도반(道伴)이 얼마나 도움을 준다
 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앞 다퉈서 대답했다.
 “절반입니다.” “삼분의 일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모두 듣고는 말했다.
 “도반은 수행의 전부입니다.”
 도반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던 부처님 말씀처럼,
 도반은 우리가 만나는 인연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인연
 이다. 더군다나 부부가 도반이어서 같은 곳을 바라
 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금상첨화이며 부처님의 가
 피자 행운이다.
 서로 도우며 같은 길을 함께 가는 좋은 벗이란 뜻
 의 도반. 유필화 교수(61·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
 원)과 이기향 교수(60·한성대 예술대학원) 부부는
 서로의 도반으로서 한길을 같이 가는 든든한 동반자
 이자, 애인이며, 때로는 선생님이자 친구이다.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뚜렷한 입지를
 굳혔다. 유필화 교수는 경영학 교재의 정석으로 꼽
 히는 30여 권의 책을 펴낸 한국을 대표하는 경영학
 자로, 불교적 시각에서 경제와 경영을 바라본 다수
 의 저서를 펴내 국내 뿐 아니라 서구 경영학계에서
 도 반향을 일으켰다. 이기향 교수는 병화, 붓다와 보
 살, 단청과 같은 불교문화를 소재로 영상과 사진, 의
 상과 바디페인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시도를 선보
 여 불교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놨다는 평을 얻
 고 있다.
 보통 개인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려면 배우자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 하지만 두 사람
 은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고 칭찬한 덕분엔 지금의
 자리까지 함께 올 수 있었다. 지금도 이 교수는 남편
 이 기향이 있는 날이면 도시락을 챙겨 학교에 갖다
 준다. 유 교수도 아내가 전시와 학사일정으로 바쁠
 때는 집안일을 거들어 서로의 편의를 봐준다. 이들
 부부는 30여년을 늘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각자의
 에너지로 승화시켰다.

에서 자란 유 교수라면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다.
 1979년 6월에 혼인한 부부는 미국에서 유학생생활
 시작했다.
 이기향 교수의 집안은 불교였지만 스스로가 불자
 도 아니었고, 사실 불교를 받아들이기 이전만 해도
 불교가 주는 이미지와 문화를 조금 존중스럽게 생각했
 다. 유 교수와 미국으로 떠날 때만해도 서양미술을
 삶의 목표로 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7년 반 동안 생활하면서 한방 먹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인으로서 겪었던 정체성에 혼
 란이 왔죠. 한국에 대한 존재감이 없고 그들에게는
 한국이 ‘Korean War(6.25 한국전쟁)’ 로만 알려져
 있는 정도였거든요.”
 이 교수가 불교에 눈을 뜨게 된 것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였다.
 “남편과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시어머니께
 끌려다시며 가서 불교 강의를 들었어요. ‘기초교
 리강좌’ 였던 것 같은데 법률 스님이 강의를 하셨어
 요. 졸지 않고 들어본 강의 중 정말 최고였어요. 그간
 고민하고 갈등하던 모든 문제의 해답이 거기 들어있
 더군요. 그걸 모르고 고통스러워 한 시간들이 너무
 억울했어. 유학가기 전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
 았을까란 생각이 들었죠.”

**미국 유학시절 함께 공부하며 독려
 유필화 “불서 탐독으로 신심 키워”
 이기향 “법률 스님 강의로 불교 심취”**

**부부 일심동체 수행·신행도 함께
 <부처에게 배우는 경영의 지혜> 발간
 독일서 현대 불교사상과 예술 전파**

부터 개인전을 비롯해 국내외의 의상 초대전, 패션쇼,
 미술의상쇼, 무대미술, 연출 등 120여 차례에 걸쳐
 수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그때마다 그가 소통하고자
 한 건 ‘불교문화를 이 시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었
 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는 것이 그의 서원이다.
 그가 처음 자신의 전공인 의상 디자인에 불교를 접
 목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1990년대 초, 석사논문
 을 준비할 때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
 려던 중에, 모든 예술이 ‘행복’을 위한 방편이며 행
 복을 추구하는 데는 부처님 가르침만한 것이 없는데
 결론이 났었다.
 처음에는 외로웠다. 1995년 광주비엔날레 출품
 때도 겪었지만, 존스럽다고 느끼는 불교를 최첨단의
 패션에 접목시키겠다는 생각은 주변의 싸한 반응으
 로 되돌아왔다.
 “처음에는 노골적으로 불교 색채를 드러냈어요.
 스님들조차 조금 거북스러워 하셨죠. 언뜻이나 불보
 살이 그려진 옷을 입으면 불교를 가깝게 느낄 거라고
 생각했어.”
 이 교수는 서양예술을 흉내 내느라 우리 것의 귀함을
 모르고 있었다는 자괴감도 들었다. 그럴 때 경전
 을 읽으면서 마음을 달랬고, 경전을 모티브로 작품
 활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이 교수가 옷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세련되면서
 도 가슴을 울리는 부처와 보살의 이미지였다. 그래
 서 인간의 아름다운 인체에 부처님 이야기와 <화엄
 경> <법화경> 등의 스토리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1995년 열었던 국내 첫 개인전 ‘피안을 향하여’ 는
 시어머니를 통해 처음 불교를 알았을 때의 감동을 고
 스란히 작품에 담았다. 성지순례차 올랐던 인도 영
 취산에서의 환희심을 표현한 ‘영취산의 환희
 (1999)’,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를 모델로
 한 ‘화(華)의 구도여행(2003)’, <금강경>의 ‘공(空)
 과 색(色)’을 주제로 한 ‘내! 나 훌쳐보기(2008)’,
 불교여성개발원원림기금 마련을 위한 패션쇼 ‘춤
 는 단청(2011)’ 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패션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시도로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 패션잡지
 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힘든 유학생생활 불교로 마음 달래
 유 교수는 195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독실한 불
 자였던 모친의 영향으로 그는 어릴 적부터 불교와 친
 속했다. 중학교 시절 도선사 청담 스님과 보문사 정
 진 스님을 친견하기도 했다. 1972년 경기고를 졸업
 하고 1979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돼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유 교수 나이는 결혼적령기였기에 그의 모친
 은 아들에게 꼭 맞는 배필을 찾아 함께 유학길에 오
 르게 하고 싶었다. 결혼 할 때 한번쯤 배우자 곱함을
 보듯, 유 교수의 모친도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세
 명의 며느리 후보(?)의 사주(四柱)와 유 교수의 사주
 를 들고 한 스님에게 찾아갔다.
 “제가 이 사람 어머니께 간택 받았어요. 아마, 부
 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부처님
 이 보내신 분이 아니었을까요?”
 첫 만남에서 이 교수는 남편에게서 ‘아 좋은 사람
 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점점 만날수록
 남편의 순수함과 학문에 대한 열정에 마음의 문을 열
 었다. 건전하고 합리적이면서도 좋은 분위기의 가정

이 교수는 어려서부터 주변의 어려운 일에 감정이
 일이 잘 되는 편이라 눈물도 많고 연민도 많았다. 그
 러다 보니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 오는 힘든 점도
 적었다.
 그럴 때면 서재에 가서 남편이 즐겨 읽던 불서들을
 펼쳤다. 신기한 것은 그때그때 마다 이 교수가 고민
 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해답들이 책 속에 있었다.
 “부처님은 어떤 문제든 간에 그에 대해서 현명한
 답을 주셨어요.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비
 롯해 환경·사회 문제 등 다방면에서 지혜의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불교밖에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술가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지금껏 달려온 이 교수는 예술을 하는 것이 좋고 멋
 지고 즐거웠지만 무엇을 주제로 정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막연히 서양미술에 대한 열망만 있었
 을 뿐이었다. 이때 불교와의 인연은 이 교수의 뿌리
 를 바라보게 해준 큰 사건이었다.
 부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 이 교수는 1995년

불교 진리는 모든 것과 통한다
 미국유학 시절, 이 교수가 한국에 대한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을 동안 유 교수도 졸업논문에 대한 압박
 으로 스트레스를 겪었다. 그럴 때마다 독서광인 그는
 불교서적을 탐독했고, 당시 매사추세츠공과대학
 (MIT) 연구원으로 유학중이던 박광서 교수(서강대
 물리학과)와 교류하면서 송산 스님과 화공 스님과
 인연을 맺고 신행활동을 했다.
 “다행히 박광서 교수가 인연이 있던 한국 사찰이
 있어 그곳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상당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미 정착한 교민들과 유학생들
 과는 살아온 배경이나 문화가 달랐지만 불교라는 큰
 그늘 아래서 함께 부딪힘 없이 신행활동을 할 수 있
 었습니다.”
 미국에서 유 교수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MBA
 를,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가 내로라하는 명문대학을 단 한 번의 늦춤도 없이

순례가 시작되는 곳
 www.ajetour.co.kr
 SINCE 1999
AJE 아제여행사
 ☎.02)730-4008
 { 구광국대표 010-3048-4008 }
 { 구경모이사 010-2747-0908 }

(합비)전세기 특가
 기강성기
구화산 · 황산 4일
 #99만원
 출발일 4월9일/4월30일

THE SILK ROAD
 중앙아시아를 횡단하는 고대의 동서 교통로
 다롄마르드
실크로드 6일
 돈황-우루무치-트루판
 출발일 4월13일

출발일 · 3월9일 **중남미 7개국 17일**
 고대문명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 하는 곳
 신비의대륙

출발일 · 3월23일 **중남미 3개국 11일**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79만
 /인기여행

하늘과 맞닿은 영혼의 땅! **“티벳 8일”**
 출발일 5월7일/28일/6월21일/7월27일/8월30일

수미산·구계왕국 16일
 라싸, 시가체, 마나사르보호수, 수미산, 구계왕국
 출발일 5월29일/6월13일

티리, 그라스 9일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파르카리
 아테네, 미오스섬
 출발일 3월23일

인도·네팔 성지순례 10일
 출발일 2월16일, 2월23일 (4명부터 출발)
 3월6일 ~ ₩259만

출: 3월9일 구화산·황산·보타산 순례6일
 3월29일 지장보살(99m), 천하비경 황산, 남해관음상

★확정★
 출: 3월10일 보현보살상주처 **아미산 5일**
 성도, 아미산, 낙산대불 ₩99만

출: 3월23일 화엄5조(두순·지엄·법장·청량국사·규봉종일)
 서안, 태원, 오대산(문수보살)6일

발칸3개국 & 동유럽1개국 8일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출발일 3월09일

인도네시아 보루부두르대탐 5일
 화엄경 성지
 임법계품과 선재동자 구비 이야기
 출발일 3월24일/4월21일/5월28일/6월23일
 7월7일/8월18일/9월1일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간-헤호
 출발일 3월21일

민족의 영 백두산·장승 5일
 출발일 7월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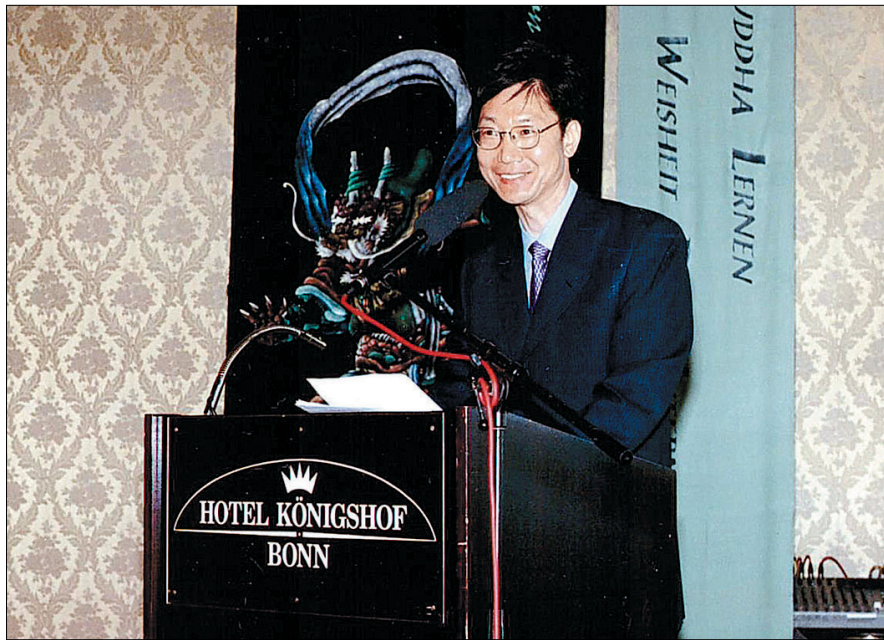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명상 힐링여행
부담 8일
 출발일 3월8일

출: 5월29일 수미산·구계왕국 16일
 라싸, 시가체, 마나사르보호수, 수미산, 구계왕국

출: 6월5일 동티벳불교 아칭스10일 출발기능/월/수/금
 진정한 티벳수행, 만여분의 스님들의 수행처

출: 6월9일 몽골5일(초원문화와 라마불교)
 울란바타르-에르텐-테를지

‘평생 도반’의 힘이죠”



유필화 교수가 지난 2004년 독일에서 열린 그의 저서 <부처에게 배우는 경영의 지혜> 독일어판 출판기념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이기항 교수가 2011년 불교여성개발원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열린 패션쇼 '춤추는 단청'에서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걸어올 수 있었던 데에는 불교와 그의 아내 이 교수의 역할이 컸다.

“아내가 있었기에 유학생활도 할 수 있었어요. 아내는 도반이면서 같은 길을 가는 가장 가까운 벗이랄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죠. 우리는 서로 사소한 것도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추운 겨울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는 것조차도 고마워 하는거죠. 또 서로 칭찬도 잘해주고... 이런 사소한 습관이 사이를 돈독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와 마케팅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경영과 마케팅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유 교수는 기업 등에서 매일 여러 차례 강연, 그리고 주요 언론사에 기고문을 통해 ‘불교경영’을 전파하고 있다.

“서양사상에 매달린다 해도 유럽과 미국의 그것에 비할 바가 못 되고, 동양사상에 집중하면 차별성을 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불교의 진리는 경제, 경영, 사회 전반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 있죠. 저는 대학시절부터 30년 동안 경영학을 공부해오다보니 어떤 분야를 보더라도 기업경영을 생각하는 것이 습관화돼 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임제록>의 ‘수처작주(數處作主)’만 해도 그렇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당연히 종처럼 회사 일을 하는 이 보다는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불교의 가르침을 기업경영에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유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경영 이념을 정립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서구의 것을 좇아 왔기에 기업인과 종사자 할 것 없이 치열한 경쟁과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세기 경영이념을 인간중심의 전통동양정신과 불교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래, 불교가 나라의 정신이고 불교문화가 나라의 문화였으니, 우리 정신문화에 맞는 경영모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온몸으로 실천한 인물로 일본의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명예회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분은 실제로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출가를 했

데, 직원들의 행복을 기업경영의 최고목표로 둔 훌륭한 기업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불교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마인드가 약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직원을 쉽게 해고하죠. 우리나라 지식층의 80%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광복 후 엘리트층은 절대적으로 기독교 영향을 받았거든요.”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얻은 영감을 유 교수는 1997년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라는 책을 펴냈다. 유 교수의 책은 2004년 독일어판으로 발간돼 서구 경영학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이때 부부는 명석한 혜안과 심미안을 조화롭게 선보였다. 유 교수의 독일 출판기념회에서 아내 이 교수는 불교적 메시지를 담은 무용 공연 ‘선화(禪舞)’로 서구인들의 감명을 받았다.

교불련·우리는선우 등 신행활동도 한마음

유필화·이기항 교수는 나란히 교수불자연합회와 ‘우리는선우’ 등에서 활동하면서 몽골, 티베트 등을 돕는 일에도 동참하는 등 불교계에서는 유명한 부부 불자다. 그래서인지 신행활동도 열심이다. 유 교수는 10여 년전부터 참선수행을 하고 있으며, 매일 퇴근 후 집에 오면 작은 불상을 모신 법당에 삼배를 올린다. 이 교수 또한 매일 꾸준히 광명진언과 자비명상을 하며 마음을 비워낸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는선우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남편을 도와 법회와 주요 행사가 있을 때면 대중을 위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간다. 한성대 불교동아리 지도교수를 10년째 맡고 있는 이 교수는 유 교수와 함께 우리는 선우 청년회를 만들어 청년포교에도 나설 계획이다.

“우리는선우를 세계적인 신행단체로 만드는 것이 당면 과제라 생각합니다. 우리는선우가 활성화되려면 기존의 회원뿐 아니라 청년들의 활동도 활발해져야 한다고 판단해 청년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들 교수 부부는 각자의 전공분야에 불교를 접목하는 일에 천착하고 있다. 니까야를 비롯한 빨리 경전을 재밌게 읽고 있다는 유 교수는 불교와 경영학 및 인문학을 접목한 책을 집필해 현대사회에 전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교수는 영기화생론(靈氣化生論)을 통해 한국미술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는 일향한국미술사연

구원 강우방 왕장 문화에서 단청에 대해 심도있게 배우며 자신의 작품에 단청을 어떻게 체화시킬지 연구하고 있다.

이처럼 하는 일도, 해왔던 공부도, 그리고 사는 방식도 다들 거라 생각했던 두 사람이 ‘불교를 통한 깨달음’이라는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는 자비와 사랑이 배어났다.

한 번은 이 교수가 남편에게 애교스럽게 “다음 생에 나하고 또 만날 거예요?”라고 물었다. 유 교수는 아내의 질문에 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그가 지은 웃음의 의미는 2006년 출간한 그의 시집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에 실린 ‘웃음’이란 시에 잘 나와 있었다.

“나는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웃기 때문에 행복하다고/또 웃음이 겨워서 눈물이 된다는/... <중략> 나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어찌할 수 없이 웃음이 납니다/그러나 웃음이 그치면 어김없이 눈물이 흥건히 괴어있습니다/... <중략> 당신은 참으로 고마운 분입니다/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소중한 선물을 주시고 가셨으니/까요/나는 당신이 오실 때까지/그것을 고이 간직하겠다고/다시 한번 다짐합니다/그것은 눈물 어린 웃음입니다”

이너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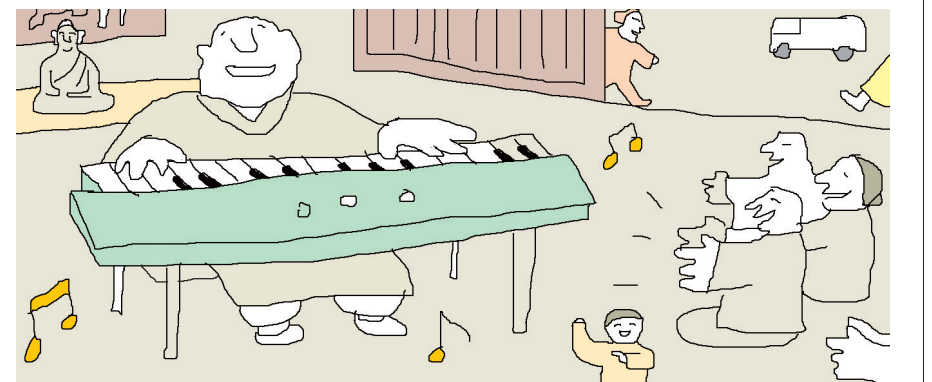
부부는 서로의 도반으로서 한길을 같이 가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애인이며, 때로는 선생님이자 친구이다.

전법일기

佛音 포교의 효과

대학생전법단 사무국장 소임을 맡아 동분서주하면서 더욱 다양한 포교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이미 종단의 포교원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포교활성화에 대해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고 있었기에 나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그 때 떠오른 것이 노래였다. 특별히 잘 다루는 악기는 없었지만 음악듣기를 좋아하고 특히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가끔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서 갈무리해둔 글도 있기에 내가 쓴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들려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그동안 갈무리 해두었던 글을 손질해서 노랫말을 만들어 보았다. 내가 들려주고 싶은 말을 간략하게 정리

었고, 멀리 서울에서 여행을 온 가족도 있었다. 강원도 강릉에서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참가 한 가족들에게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친구들과 함께 온 사람들도 있었고, 혼자 왔다가 가족과 함께 오지 못해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랑과 관한 노래를 부를 때는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이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별에 관한 노래를 불렀다. 때로는 친구나 가족간의 갈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럴 때는 또 그런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와 어울리는 노래를 불렀다. 아이들과 함께 통기타반주에 맞춰 동요를 부를 때는 처음엔 쑥스러워하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울음까지 곁들여서 우화무를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법



그림·박구원

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실력 있는 작곡가를 소개받아 노래로 만들어졌다.

그 즈음 백양사에서 다시 내려와 소임을 맡아달라는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정중히 사양했지만 결국 백양사로 다시 내려가 포교국장 소임을 맡게 되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불교교리 입문반 강좌를 개설하고 서울에서 계획했던 노래포교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포크가수와 함께 한 달에 두 번 백양사 우화루에서 노래와 이야기가 있는 열린 법회를 시작한 것이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차와 간단한 다과도 준비했다. 처음에는 야외법회에서 사용하던 이동식 엠프를 사용하다가 광주불교방송사에서 기술부장으로 재직하는 신도의 도움으로 한결 나아진 음향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회를 마쳤을 때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무척 행복했다는 인사를 건넸다. 그 시간을 함께 했던 나도 무척이나 행복했다.

크게 광고를 하지는 않았기에 때로는 단 한 가족만 참여한 날도 있었고, 아무도 없이 시작했다가 밖에서 노래를 듣고 들어오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가까운 광주에서 한 번 다녀간 가족이 다시 찾아오는 경우도 많아지고, 법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 절을 찾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포교의 목적이다. 하지만 절이 아니라도 어디서나 삶에 힘겨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도 포교의 한 방법이 된다. 그렇게 법회를 이어가면서 음반을 내고 좀 더 큰 공연장에서 사람들과 만나겠다는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수안 스님(前 백양사 포교국장)



謹賀新年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월드불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배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월드불다를 검색하세요.

www.withbuddha.co.kr